



북한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길

최상훈

뉴욕타임스 서울지국장

■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Make our country great again!

트럼프: Make America Great Again!

중국몽: Make China Great Again!

푸틴: Make Russians Feel Proud Again!

북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Make DPRK Strong and Great (Again)!

이들 나라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내부적으로 강성국가 강조, 외부세계에 대한 위기감 또는 혐오감 조장. 존엄 과시형 (triumphalist) 지도자. 이런 두 지도자 (김정은 트럼프) 간에 핵과 경제개발 맞교환 협상이 가능할까?

■ 중매와 좌절

문재인대통령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 촉진자로 나선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인정받아야. 과거 보수정부의 압박. 무시 정책도 비핵화에 실패한 상황. 결국은 지난한 외교만 이 해답. 그러나 문대통령의 중매방식이 비현실적 이었다는 비판은 가능. 김정은 정권이 한번도 핵이 빠진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구상하고 있다고 표현한적이 없음. 오히려 반대로 핵개발 완료했으니 이제 경제개발에 집중할 여력이 생겼다는 주장. 김정은에게 핵은 정권의 명운이 걸린 쉽게 팔 수 없는 부동산. 북한의 핵능력고도화로 미국이 과거 고자세를 꺾고 양보할거라 생각하는듯. 트럼프에게 북한 핵은 투기성 거래의 대상. 실제 트럼프는 북핵협상에서 치고빠지기식 (erratic) 행보를 보임: 중국 도움 요청했다가 나중에 "totally destroy North Korea" 협박. 대화 시도 킬러슨 문책했다가 김정은 만나면 "영광" (honored) 이라고 말할. 심지어 "fell in love"라 말하기도. 그러면서 이란식 핵협상을 실패라 규정해 대북협상에서 타결여지를 상당히 줄여버림. 김정은과 트럼프는 둘다 과시하고 싶지만 서로 과시하고 싶은 내용이 다름. 결국 top-down approach는 사랑/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만나 예물교환협상에서 과도. 상대방 예물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커 성사되기 어려운 중매. 중매쟁이의 오판: '낭만적 민족주의'에 빠져 김정은과 북한의 계산법에 눈이 멀고 미국외교. 정치권과 교류.이해 부족으로 트럼프의 충동즉흥적 부동산거래식 외교에 과도한 희망적 기대를 한 건 아닌지?

문재인 대통령은 과시형 인물들이 득세한 동북아에선 결이 다른 지도자로 인식됨. 과거회귀성 지도자의 탄핵 후 등장한 liberal democracy 상징적 인물: 평소 정의, 인권, 소수, 표현의 자유 등 강조. '야당북'이라 하지만 아직도 40%지지층 유지에는 이러한 이미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듯 (광화문 광장 데모허용 등). 그러나 문재인 역시 실재론 상당히 sentimental 민족주의적 지도자란 비판 직면. 김정은의 국제무대데뷔에 적극 역할. 그러면서 인권변호사 출신이 북한인권은 무시한다는 비판받고 있음.. 선거 때와 최근 지소미아사태 때 '친일파' 청산내세움. 위안부합의파기 등 일본과 긴장관계. 지소미아파기결정으로 '반일에는 한미동맹도 없다'는 비판직면. 결국 21세기 우물 안 개구리란 비판

직면: 미국 등 주변국과 북한해법인식격차. echo chamber식 외교: 같은 생각하는 사람끼리 모여 기존 생각과 이념을 서로 재확인/재생산하며 다른 주장과 견해는 차단한다는 비판직면. 동시에 한국 스스로 주도적 외교역할을 못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음.

■ 새로운 길을 위한 새로운 질문들

3 번의 북미 정상만남으로 분명해진 것:

- 1) 트럼프와 김정은 둘 다 reality show 같은 과시형 흥행을 좋아한다.
- 2) 북미간 그 어느 때보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카드를 많이 보여주었으며 그 결과 양쪽의 간격이 분명히 드러남. 북한은 제재 없는 (중소) 핵국가로 인정받으며 비핵화는 '핵 없는 세상'에서나 가능한 먼 일로 여김.

주변국들도 대북 정책에 '새로운 길'을 모색 해야 하는 건 아닌지?

- 비핵화 외교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외교적 노력의 주축이 이미 핵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로 옮겨가야 하지 않을까? 한국에서 공론은 어떻게 하던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거침. 다른 가능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은 신문방송에 잘 보이지 않는 듯. 북한은 핵 가지고 한반도 맹주행세 하려고 함. 지금 같은 상황 (일시적 협상과 긴장이 반복되며 북한의 핵미사일능력은 계속 증가: 비핵화의 가격표는 폭등 하는 상황) 이 계속된다면? 미국이 혹시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합의를 한다면?
- 남북통일을 절대적 과제로 보는 태도가 북한 변화에 오히려 걸림돌은 아닌지? (물론 헌법에 명시되었지만) '민족통일' 또는 '민족화해'식 사고방식이 아직도 유효한 대북. 비핵화 전략인가?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면서도 화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한국 문재인 정부를 비하하는 등 수많은 반통일적 행동. 북한에게 '부끄러우니 같은 민족이라 부르지 말라'는 자세가 필요한 건 아닌지?
- 미중 갈등이 한국에겐 기회이자 큰 위기. 북한 핵 해법에 미국식. 중국식 양자택일을 강요 받는 상황이 온다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한국을 한미일 고리에서 뜯어내려는 중국의 시도는 갈수록 노골적. 한편 트럼프행정부는 동맹국의 핵위협인 북한 중.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별 개이치 않는 듯한 태도. 그러면서 방위부 분담증액요구/핵우산제공 가격을 높이는 상황. 트럼프시대 미국에 대한 불안/fear 는 증가 respect 는 줄어듦. 일본 아베는 이 기회에 한국 길들이겠다는 시도. 트럼프 이후에도 트럼프식 일방주의가 계속될 경우 한미동맹은?

■ 발제자: 최상훈_ The New York Times 서울지국장. 한국과 미얀마 관련 취재로 Pulitzer Prize, George Polk Award,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Award, Asia Society's Osborn Elliott Prize, Johns Hopkins University's Novartis Award, Human Rights Press Award in Asia, 한국기자협회상, 삼성언론상, Overseas Press Club Award (2 회 수상), Society of Publishers in Asia Award (2 회 수상), New York Times Publisher's Award (5 회 수상) 등 다수 언론상을 수상하였다. 저서 및 편저로는 <<The Bridge at No Gun Ri>> (Henry Holt, New York 공저, 2001); <<How Koreans Talk>> (은행나무, 서울, 공저, 2002); <<Korea Witness: 135 Years of War, Crisis and News i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은행나무, 서울, 공편, 2006); <<Troubled Transition: North Korea's Politics, Economy and External Relations>> (Stanford University, 공편, 2013)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9) j.baek@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 본 발제문은 동아시아연구원이 2020년 1월 21일 개최한 [Global NK 핵inSIDE 토크] 2020 동아시아연구원 대북 통일전략 토론회의 자료입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